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

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
공공기관서 보증금 선지급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예고
유공자법 등 쟁점법안 상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또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지원 신청기간(3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해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나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을 이

유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 가결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삼석,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 수상

“먼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최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이 28일 우수한 입법 활동으로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 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한다.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 섬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입법 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우수 법안에 선정돼 수상했다.

서 의원은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해 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인철 “매주 토요일 ‘찾아가는 민원센터’ 운영”

“지역민과 소통 ‘금귀월래’ 실천”

조인철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서구갑·사진)은 오는 6월1일부터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조 당선인은 “‘금귀월래(金歸月來·금요일에 지역구로 내려가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월요일에 국회로 복귀한다는 뜻)’를 실천하고,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충을 털어놓고 싶어도 정작 소통 통로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민원센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



영되며, 6월에는 양동시장(1일), 동천동(8일), 광덕고 사거리(15일), 5·18 시민공원(22일) 순으로 운영된다.

서구갑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조 당선인을 비롯해 서구갑의 기초·광역의원 등이 참여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조 당선인은 “‘찾아가는 민원센터’는 항상 서구갑 주민 곁에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김진표 “적대적 대결 정치, 대의민주주의 위기감 커져”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짙어졌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정치와 팬텀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

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 “노동자 정치세력화 모색”

22대 국회에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재건 방향으로 제시했다.

권영국(사진) 신임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7·8기 지도부 임·취임식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와 8기 지도부에게 실패한 정의당과 진보 정치를 일으켜 세우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워줬다”며 “이제 8기 지도부 정의당은 원외로 쫓겨나 광



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외 정당이 된다는 것은 소외 당한 많은 사람들, 민중 속으로 가라는 또 다른 엄명”이라며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고 노동자와 민중의 곁에 함께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자 진보 정치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꿈꾸며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인 권 신임 대표는 해직 10년 만인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으로 활동했다. 앞서 권 대표는 단독으로 입후보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

임정에 경북도당 위원장과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은 부대표로 선출됐다.

서울=김선욱 기자